

# 무안공항, 설연휴 동남아 여행상품 동났다

## 유류할증료 인하·엔저에 지역 여행업계 활기

### 세월호·후쿠시마 사태 이후 침체 분위기 반전

직장인 김모(광주 광산구 신창동)씨는 철수를 맞은 장모를 위해 최근 일본 온천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 애초 제주도를 보내드릴 생각이었지만 문의했던 여행사가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며 일본을 추천해 목적지를 바꿨다. 여행사들은 “유류할증료가 내렸고 환율도 좋은 상황이라서 요즘 국내여행 보다 해외여행 경비가 많이 싸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할증료 폭락과 엔저현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지역 여행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됐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지역 여행업계와 항공사에 등에 따

르면 하나투어에서 내놓은 설 기간 중 일본(오사카, 오키나와)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 대한 3박4일 여행상품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25% 이상 증가한 예약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해외여행객이 무려 90%에 달했다.

무안공항 전세기편을 이용하는 모두투어의 대만 타이페이·화련 상품도 인기리에 판매완료됐고, 5일간의 설 연휴를 대비한 상품 또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17~22일 출발하는 동남아 여행상품은 남은 좌석이 없다.

여행업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잠시 미뤄뒀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항공 유류할증료는 낮아진 점도 해외여행 수요증가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15달러로 정했다. 1월(58달러)보다 74%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2월(165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유럽·아프리카 노선도 56달러에서 15달러로 73% 내려갔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노선도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유류할증료 부담을 덜 필요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고객이 항공권을 살 때 기본료에 더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기름값이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항공요금 안정화,

여행자 편의 기여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국내 항공업계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던 기간은 지난 2009년 3~8월까지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지역 여행업계는 방학과 설 연휴가 있는 2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엔저효과가 계속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사고 이후 침체됐던 일본 여행 상품의 수요도 차츰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방사능 사고 이후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엔저 효과 덕에 문의가 늘었다”며 “오사카나 오키나와를 주로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떨어지면서 동남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유류할증료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로 떠날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1.96 (-0.72)
- ▼ 금리 (국고채 3년) 1.94% (-0.05)
- ▲ 코스닥 593.31 (+3.04)
- ▼ 환율 (USD) 1097.40원 (-5.90)

## 한전KDN,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해고

### 부패척결 4대 과제 선정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입자와 직원간 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강력한 청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전KDN이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운영 비리, 계약업무 비리 등이다.

과제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해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고발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비영고 법인카드 사용을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팀장 이상 보직자에 대해서는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 비리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청렴도 평가결과 하위

10% 속하면 보직인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청탁 관련 금품수수 적발 시에도 승격·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달 중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약업무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청렴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2직급 이상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전KDN의 한 관계자는 “자체 감사기구 내 조사감찰팀을 신설해 암암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 옴부즈맨 위촉, 인사위원회 심의 외부인사 참여 등으로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나주혁신도시 본사이전에 맞춰 청렴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대우위니아, 광주에 법인 신설 고객 서비스 강화

대우위니아(대표이사 박성관)가 서비스와 물류 전문회사 (주)대우위니아서비스 법인을 신설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대우위니아는 김지남장고 업체와 생물관간가전 위니아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으로, 서비스·물류 전문 자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 설치, 배송, 콜센터, A/S

업무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를 본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대우위니아는 이를 위해 최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대우위니아 고객들은 기존 고객상담실을 통한 서비스와 함께 물류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증진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USA NBA 스타 내세워 올스타전 광고

금호타이어 USA가 미국프로농구(NBA) 인기 스타인 뉴욕 닉스 포워드 카멜로 앤서니(31)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내세워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금호타이어 USA는 오는 15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NBA 올스타전을 전후로 타이어 광고와 각종 이벤트 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기간에 타임스퀘어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타임스퀘어와 나스닥, 로이타, 펜플라자 등 유명 디지털 전광판과 옥외 광고를 활용해 기업 이미지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USA는 지난달 16일부터 타임스퀘어역과 그랜드 센트럴역 간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내·외부에 앤서니를 모델로 한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다.

최혜영 금호타이어 북미본부장은 “미국 현지 농구팬들이 카멜로 앤서니와 함께 하는 금호타이어 행사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금호타이어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5 NBA 올스타전은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열리며 215개국에서 47개 언어로 방송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전, 지역발전 간담회

한국전력(조환익 사장)은 3일 광주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환익 사장을 비롯한 한전 경영진 4명과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석동현 전남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한전 제공>

## 매각 공고 결정 '금호산업' 효과 컸나

### 1월 광주·전남 주식투자 거래량·거래대금 늘어

혁신도시 이전 효과로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에서 지역거래 상위 종목 5위에 올랐던 한국전력이 올해 1월에는 10위권에 포함되지 못하는가 하면 채권단의 매각작업이 시작된 금호산업이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거래가 증가하는 등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금호산업에 대한 주목효과로 거래량·거래대금 크게 늘어났다. 거래량은 지

난 달에 비해 16.25%, 거래대금은 36.04% 증가했다. 거래량은 3억5461만주에서 4억1224만주로 5763만주가, 거래대금은 2조268억원에서 2조7572억원으로 7304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순매수량은 497만주에서 264만주로 233만주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는 슈벨생명과학, 미래산업, 키스톤글로벌, 코아스 순이었으며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제일모직, KODEX레버리지, 삼성에스디에스, SK하이닉스 순으

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 상위종목으로는 씨씨에스, 국제디와이, 보성파워텍, 이화전기, 휘닉스소재, 이트론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컴투스, 다음카카오, 보성파워텍, 웹젠, 게임빌, KG이니시스 순이었다.

거래소는 이번 거래 실적에 혁신도시 이전으로 주목을 끌었던 한전에 대한 관심도가 빠졌고 최근 매각공고 결정에 주목받고 있는 금호산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은 2.37%로 전월(2.25%)보다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1.68%로 전월 1.5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새얼굴

## “안전·설비 강화로 경쟁력 확보”

### 안동일 광양제철소장



“안전과 설비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일 취임한 광양제철소 안동일(56)소장은 “세계 철강수요 부진과 중국산 철강제품 국내유입 증가 등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설비개선 노력을 통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임직원들에게 “수익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추진하

고, 다각적인 차원의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안 신임 소장은 1984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설비기술부 정비기획팀 리더, 포항 설비기술부장, 광양제철소 설비담당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china.co.kr  
233-9582 (중) 구오말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